

25. 여호와께 말기는 신앙

신앙고백

찬 송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잠언 16장 1~10절

말씀묵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개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경영하시는 여호와께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인생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삶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1).

우리는 마음의 경영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나' 로 착각하며 삶의 방향과 목적을 모두 자신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역사를 주관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2.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5-6).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데,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길 때 오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7-8)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나에게로 쏠렸던 시선이 타인과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픈 이가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면 하나님은 원수일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담대한 믿음 가운데 문제, 염려, 고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맺는말

주님의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순종이요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불의의 유혹에 흔들림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김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적용

나 자신을 의지한 결과와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결과가 달랐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성령강림 후 둘째주일**
오늘은 성령강림 후 둘째주일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 2. 예배안내**
- 새벽기도회와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가 대면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참석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온전한 예배를 위해 예배 시작 전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3. 주방봉사활동 부분적 재개**
찬양대원, 교사, 재정부 및 교역자 등의 점심식사를 위해
주방 봉사활동을 다음주일(26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합니다.
 - 4. 예배위원안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리니
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6. 임마누엘찬양대 대원모집**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대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숙권사님(총무 010-3761-0755)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교우소식**
- [JDTS 예수제자훈련학교] 6월 25일(토) ~ 7월 2일(토)
현장실습 차 출국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팔 : 이용준장로님, 임완민장로님, 윤영임권사님, 장영미권사님
- 터키 : 임수정자매님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목사 : 조 항 철

부 목 사 : 정진영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전임전도사 : 이은재	지 휘 자 : 박경미
교육전도사 : 신새벽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하영 김성혜 이하림

제118권 제25호

성령강림 후 둘째주일
6.25 민족화해주일

2022. 6. 19.

The Te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요 1: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둔전교회**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삼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조항철 목사

※ 표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2장 다같이

2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교독문 99.나라사랑(1)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86장 다같이

기도 1부: 나차금 권사
 2부: 윤종찬 안수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7장 54-60절 (신약 199면) 인도자

특송 성령이 오셨네 1부: 영상
 아름다운 예수 2부: 임마누엘찬양대

말씀 『성령 충만한 사람 - 스테반』 조항철 목사

금주의 말씀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6월 봉사위원

		6월 19일	6월 26일	7월 3일	7월 10일
예배 기도	1부	나차금	박영애	남영옥	이복음
	2부	윤종찬	이미숙	안순조	정순진
	3부				
헌금위원		1부 : 안상문		2부 : 임근실	

찬양 그 사랑 얼마나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357장 다같이

※축도 조항철 목사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금요심야기도회 : 오후 9시

말씀 : 정진영 목사

말씀 : 조항철 목사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30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자율	정진영	조항철	조항철	조항철	조항철	자율

【사도행전 7장 54~6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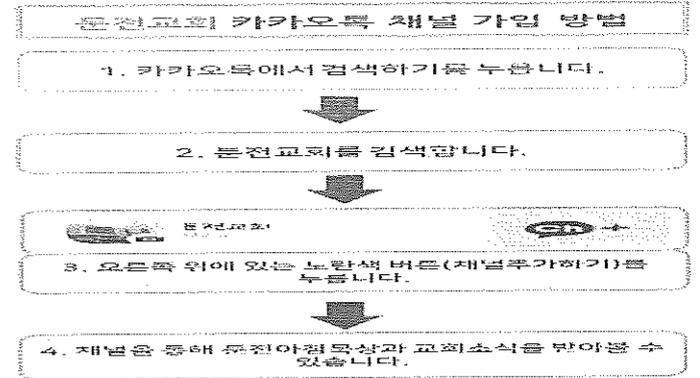
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55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 59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배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0: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0: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중예배실
	새벽예배	오전 5:30	중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본당

<2022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공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승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산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 **십일조**
 김성혜 김용수·이미숙 박춘화 신새벽 안홍옥 양영숙 오윤희 윤주영 이인임 이정훈 이종임 임근실 임수정 정재현 주영순 차주희 최영애·조남진 추사순 홍지현 홍춘근·한춘자 무명
- ◆ **감사헌금**
 김영선 김영자·안상범 김현대·김정은 남영옥 박상민 박은경 박재락 박정아 방지원·방태성 서인순 이말자 이소임 이순자 정귀자 정영숙 주영순 천광우 최영애·조남진 표금숙 황미선 무명2
- ◆ **선교헌금**
 광삼화
- ◆ **건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537,000	690,000	3,285,000	30,000	

